# "한전 이달 청사 설계 공모 10월까지 부지 매입 완료"

■나주 혁신도시 관련 기관장 초청 간담회

## 정종환 국토 "혁신도시 후퇴·변경·축소 없다"

나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들어서는 한국전력공사 이달 중 청사 설계를 공모하고 10월 중에 부지 매입 계약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이도식 관리본부장은 8일 오후 '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모임'(대표 최인기 의원)이 국회에서 가진 '혁신도시 관련 기관장 초청 간담회'에서 민주당 최 의원이 '한전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자 이 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은 특히 "글로벌 에너지 대표기업으로서 상징성 있는 사옥 건립 및 창의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외에 설계를 공모, 나주 혁신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Land mark)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혁신도시촉진모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전기관의 조속한 지방이전 승인을 촉구하는 한편 ▲통폐합기관의 추진상황과 미이전지역에 대한 대책을 보고받고 ▲157개 이전기관의 지방이전 예산확보 및 부지매입, 청사설계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최 의원은 이날 "대다수 공공기관 이전이 미뤄지는 것은 혁신도시에 대한 청와대의 소극적 자세 때문에 눈치를 보는 탓"이라며 "정부가 주도해 기관 통폐합을 마무리 짓고 이전 승인을 받지 못한 기관에 대해 조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율형 사립고 등 특목고 설립을 제도화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관계 장관 및 이전기관장을 청와대로 불러 혁신도시 이전 관련 회의를 주최함으로써 정부의 혁신도시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종률 의원은 "애초 정부가 상반기 중으로 지방이전 기관 승인과 공공기관 통·폐합을 마무리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으나 이뤄지지 않는 등 소극적인 추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자족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국토부는 주공·토공 통합 후 구조조정을 위한 용역은 2건이나 발주했지만 통합본사 위치결정과 관련한 용역은 없었다"며 "다양한 관점을 수렴한 공인기관의 전문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하고 이 용역에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 내용을 통합본사 위치문제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이전 승인기관에 대해 조속한 부지매입 및 청사 설계착수를 독려하고 있다"며 "혁신도시의 후퇴나 변경·축소는 없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유럽 순방 李대통령 기아차 전시관 방문** 주요 8개국(G8) 확대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유럽 3개국을 순방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7일 오후(현지시간) 첫 방문국인 폴란드 바르샤바 문화과학궁전에서 열린 '세계일류 한국상품전' 전시장을 방문해 기아차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 후진타오, G8 참석 포기 급거 귀국

## 中 우루무치 유혈사태 악화 우려 수습 나설 듯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시위 사태가 악화 조짐을 보이자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참석을 포기하고 급거 귀국했다.

중국 외교부는 8일 후 주석이 신장위구르자치구 위구르족들의 분리독립 요구 시위를 수습하기 위해 이탈리아 국빈 방문과 G8 확대 정상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길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신장위구르자치구 수도인 우루무치에서는 지난 5일 저녁부터 시작된 위구르족들의 분리독립 요구 시위로 최소한 156명이 숨지고 1천80여명이 다치는 등 최악의 유혈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라킬라에서 이날 오후 개막한 G8 확대 정상회의에는 후 주석을 수행하고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다이빙궈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대신 참석했다.

또 후 주석이 G8 정상회의 중간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개별 정상회담과 양자회담 일정은 물론 G8 정상회의 폐막 직후인 10일로 예정된 포르투갈 국빈 방문 일정도 취소됐다.

후 주석은 베이징에 도착한 직후 곧바로 중국 공산당 최고 정책 결정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신장지역 시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위구르족들의 대규모 시위사태 이후 한족들이 보복시위에 나서면서 민족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는 8일에도 크고 작은 산발 시위가 이어졌으며 위구르족들은 도시 탈출에 나섰다.

위구르족 30~40여명은 이날 낮 12시(한국시간 오후 1시)께 우루무치시내 중산로 인근 남문광장에서 중국측의 편파적인 사건 처리에 항의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다. 경찰병력이 이들을 둘러싸고 잠시 대치했지만 별다른 무력 충돌이나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이날 정오께 우루무치사범대학 인근에서도 한족 700~800여명이 모여 위구르인들의 테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였다.

우루무치시 정부가 야간 교통통제를 실시하고 도로 통행을 차단하는 바람에 전날과 같이 수천명이 모이는 시위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내 곳곳에서 산발적인 기습시위는 계속됐다.

/연합뉴스

## 생계비 가장 비싼 도시 도쿄 1위…서울 51위

세계에서 생계비가 가장 비싼 도시는 일본의 수도 도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BBC 뉴스 인터넷판은 국제인력자원 컨설턴트인 머서가 세계 143개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 주재원들의 생계비 조사를 인용, 엔화의 강세로 일본 도쿄와 오사카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고 7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BBC의 롤랜드 뷰억 도쿄 특파원은 놀라운 결과가 아니라며 일본에서는 수박 1통이 약 1만9천원, 망고 1개가 약 3만원이라고 전했다.

서울은 원화약세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지난해보다 46계단 떨어진 51위를 기록해 하락해 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1위였던 러시아 모스크바는 두 계단 내려앉았고 영국 런던 역시 파운드화의 약세로 3위에서 16위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 印尼 유도요노 재선 유력

집권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사진〉 현 대통령이 8일 실시된 인도네시아의 두 번째 직선 대통령 선거에서 다른 후보들을 2배 이상의 표차로 따돌리고 재선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 여론 조사기관들이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도요노 대통령이 55~60% 득표율을 보여 결선투표없이 대통령으로 재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선거위원회는 27일께 대선 투표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배아줄기세포로 인간 정자 만들었다"

### 英 뉴캐슬대 첫 성공

사상 처음으로 인간배아줄기세포로 정자가 만들어졌다.

영국 뉴캐슬 대학의 카림 나예르니아 박사는 인간배아에서 남성 염색체를 가진 줄기세포를 채취해 시험관에서 특수 화학물질로 처리, 정자로 분화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넷판이 7일 보도했다.

특수처리된 줄기세포 중 몇 개가 생식세포의 세포분열인 감수분열(meiosis) 과정을 거쳐 난자와의 수정에 필요한 머리와 헤엄치는 데 필요한 꼬리를 갖춘 움직이는 정자로 전환되었다고 나예르니아 박사는 밝혔다. /연합뉴스